차 례

제 1 과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였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체53(1964)년 4월 1일이였습니다.

이미전부터 **김정일**대원수님의 대학시절의 뛰여난 혁명활동소식을 전해듣고 마음속에 경모의 정을 간직하고있던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대원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놓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나오시여 일군들과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정일입니다. 함께 일해봅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게 된 크나큰 감격에 넘쳐 한결같이 함께 사업하게 되여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일군이 위대한 대원수님을 대원수님께서 쓰실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방은 보통사무실과 다름없이 소박하게 꾸려지기는 하였지만 독방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것이 내 방이란 말입니까라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별로 잘 꾸리지는 못했지만 리용해주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런 독방이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사양하시였습니다.

그래도 일군들은 이미 준비해놓은 방이니 리용해주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나를

달리 생각하고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나도 동무들과 마찬가지로 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전사의 한 사람이라고, 전사에게 무슨 집무실이 따로 필요한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는 동무들과 같은 방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의 방에 책상과 의자를 하나 더 들여다놓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소박한 품성에 깊이 감동된 일군들은 더는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반지도원들과 한방에서 책상을 마주하고 같이 생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실태료해부터 하시면서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바로가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때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집무실로 오가실 때 자주 만나뵈우면서 대원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특전을 누리고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더없는 행복으로만 여기고있었지 대원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을 잘 모시는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의리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조직하여도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업과 생활의 순간순간을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동무들은 수령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당과 조국의 찬란한 앞날이 있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는 사업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서나 호위사업에서는 천번중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진행하신 료해사업기간은 일군들을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숭고한 충실성을 지니고 **김일성**대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모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그러던 6월 19일이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당사업,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사업을 깊이 료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으로부터 우리 당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2 과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 시기 일부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진행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주체53(1964)년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며칠동안 자강도와 황해북도일대를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그동안의 사업보고를 받으시였습니다.

그가운데는 베아링소조철수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얼마전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것의 하나가 베아링이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150만개의 베아링을 반드시 생산보장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지도소조를 무어 베아링공장에 파견하였습니다.

지도소조는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베아링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산자들의 기세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장에 내려온 중앙의 한 간부가 공장을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지금 있는 설비를 가지고서는 150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획을 낮추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도소조성원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형편을 잘 몰라 그럴수 있는데 공연히 고생을 하지 말고 공장일에서 손을 떼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일군이 내리먹이니 소조성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간부라는 사람이 계속 압력을 가하자 지도소조성원들은 하는수없이 도중에 철수하여 들어오고말았던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몹시 놀라와하시였습니다.

《그래 계획을 70만개로 낮추었단 말입니까?》

《예, 하도 내리먹이는 바람에 …》

순간 **김정일**대원수님의 안광에 섬광이 번쩍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격한 음성으로 150만개의 베아링을 생산하라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인데 누가 감히 해라 말라 할수 있습니까, 그래 개별적인 간부가 그만두라고 했다 하여 도중에 올라온단 말입니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는것을 깨닫고 몸둘바를 몰라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흥분을 진정할수 없으신듯 방안을 오가시였습니다.

잠시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오직 수령님만을 알며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생각하고 일해나가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들을 무턱대고 따를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맞지 않을 때에는 투쟁할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당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집행에서는 오직 무조건성의 정신만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후 지도소조성원들은 다시 베아링공장으로 나가 끝내 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러한 령도의 손길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에게만 그친것이 아니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화보급사 일군들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제때에 관철하는 기풍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이 시기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 예술영화들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 영화들을 들여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영화보급사 일군들은 이 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9월 어느날 조선영화보급사를 찾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화보급사 일군에게 영화를 들여오는 사업을 맡아보는 일부 일군들이 당적사상체계가 서있지 않다보니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영화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속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뒤 영화보급사 사업에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관철해나가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당적사상체계—당의 령도자인 수령의 사상체계를 이르는 말.

제 3 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정체를 밝혀내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사업을 료해하시다가 한 작가가 당의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간부들의 압력에 못이겨 그들의 비위에 맞는 글을 쓸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이것을 그저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라고 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력사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만일 앞으로 우리 당안에서 1956년에 머리를 쳐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같은자들이 나타난다면 동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한 일군이 그런자들이 감히 다시 나타나지 못할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가 종파오물을 청산하였지만 앞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지면 종파분자들이 또다시 생겨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자신께서는 최근 일부 사람들속에서 좋지 못한 움직임이 있다는것을 간파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은 작가를 시켜 자기를 내세워보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런자가 있다니?!)

모두가 놀라와하는것을 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 일부 동무들가운데는 직위가 높다든가 혁명을 오래하였다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모시려고 하고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지난날 당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때문에 우리 당이 얼마나 시련을 겪었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가슴아픈 사연을 묵새기시려는듯 한동안 말씀을 끊으시였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을 지나간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종파를 숙청했다고는 하지만 종파적요소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왜 자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는가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56(1967)년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정체를 밝혀내시였습니다.

그때 평양의 어느 한 극장에서는《일편단심》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알아보시니 그것은 개별적간부들의 강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였습니다.

작품에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변절한자가 대단한《혁명가》처럼 그려져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분노를 참으실수 없으시였습니다.

이것은 이자들도 지난날의 종파분자들과 꼭같은 놈들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습니다.

놈들의 본심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연극 《일편단심》의 반동적본질을 까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격분한 음성으로 흘러간 력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배신자, 변절자들은 례외없이 음모가, 야심가들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연극 《일편단심》은 음모가, 야심가들이 제놈들을 요란한 《혁명가》로 내세우기 위하여 수를 피운 연극의 연극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해당 일군에게 연극《일편단심》의 공연을 즉시 중지하도록 지시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료해하신 모든 자료들을 **김일성**대원수님께 보고드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제놈들을 내세우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였습니다.

그해 5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이러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비범한 통찰력에 의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제때에 폭로분쇄됨으로써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는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4 과
이국땅에서 뜻깊게 기념한 4월 15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던 주체54(1965)년 4월이였습니다.

이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탄생 53돐을 맞이하게 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하루 앞둔 4월 14일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행원들과 대사관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의의깊게 보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생신날을 맞으며 **김일성**대원수님을 축하해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국에서 맞는 4.15명절준비를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생일상차림표를 보시고 하나하나 완성해주시며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국수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니 수령님의 생신날에는 국수를 진지상에 올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이국땅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4월 15일을 뜻깊게 기념하게 된 일군들은 크나큰 행복에 휩싸였습니다.

4월 15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수행원들과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들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축원의 인사와 함께 정성껏 마련한 꽃바구니를 드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명절분위기로 설레이는 대사관으로 가시여 연회준비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먼저 연회장소인 회의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연회탁배치로부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앉으실 의자 색갈과 높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어 정원으로 나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해빛을 가리우기 위하여 림시로 설치한 지붕을 보시고 **《그것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치하하시였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대사관녀성들이 국수누를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여 다정히 인사부터 건네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몸소 무거운 가마뚜껑을 열어보시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연회준비는 마감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사관일군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을 맞이하고 바래드리는 질서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오전 11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대사관에 도착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맞이한 대사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였습니다.

평양랭면이 상에 오르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놀라와하시면서 이역땅에서 평양랭면을 보게 된다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곁에 있던 한 일군이 **김정일**대원수님의 지성이 깃든 국수라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고마우신듯 국수를 많이 들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에 의하여 마련된 연회는 **김일성**대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습니다.

연회가 끝나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사관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생일상을 차려주어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대사관을 떠나시였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짓는 대사관일군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오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는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대사관동무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영접도 잘되고 음식도 잘 준비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담아 일군들에게 나는 오늘 조국을 멀리 떠나 이역땅에 와서 동무들이 차린 생일상을 받았을 때 크게 감동도 되고 기쁘기도 하였으며 지난날 이역땅에서 생일을 한번도 쇠지 못한 쓰라림이 가셔지는것 같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끝없는 충실성에 의하여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할수 있었습니다.

제 5 과
한 혁명가유자녀에게 베푸신 뜨거운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55(1966)년초 어느날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원이였던 김금순소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의 혈육이라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아동단원 금순소녀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유격대의 련락임무를 수행하던중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받드시고 아동단원 금순소녀를 그리시며 그의 혈육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도 만나시고 중국 동북지방의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낸 일군들도 만나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다음해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금순의 어머니가 전투장에서 마을사람들에게 맡기고간 금순소녀의 남동생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 지금 평양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한 혁명가유자녀를 때늦게나마 찾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그를 거듭 만나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고생스럽게 보낸 그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다 걸은 혁명의 길, 누나가 못다 걸은 투쟁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그를 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시며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60(1971)년 2월 만수대예술단이 꾸바로 첫 공연을 떠날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술단을 책임질 임무를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양복과 외투, 와이샤쯔와 넥타이, 신발, 고급손목시계까지 안겨주시며 이 옷은 부모된 심정으로 성의껏 마련한것이니 입고 떠나도록 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옷 한벌 변변히 입어보지 못하고 자라던 지난날이 생각나 울었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행복이 꿈만 같아 흐느끼였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몸소 그를 비행장에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바래워주시면서 어제날 원쑤놈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빼앗긴 고아가 오늘은 예술단을 이끌고 국제무대로 나가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항일의 아동단원 금순소녀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보살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가 밤을 새우며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 새벽 두세시가 되면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퇴근시켜주군 하시였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의 집을 찾으시여 소박하게 꾸려놓고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랭동기, 텔레비죤수상기, 록음기, 반도체라지오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면서도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엄하게 비판하시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결함을 범한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즉시 그를 부르시여 무려 한시간나마 비판하시였습니다.

이날 그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으나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가슴이 아파 새날이 들 때까지 뒤척이며 모대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집으로 위대한 대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한 일군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몸소 보내시는것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약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을 보내시면서 이런 내용

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오늘 아동단원 김금순동무의 동생을 비판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라고 되게 욕을 했는데 그러고나니 내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아마 그 동무도 욕을 먹은 뒤라 잠을 자지 못하고있을거요.

그러시고는 그 동무의 건강이 념려되여 언제부터 이 약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이 약을 가져다주라고 하시였다는것입니다.

보약병을 든 그의 손은 떨렸고 량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샘흐르듯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이끄심밑에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혁명가유자녀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의하여 수많은 혁명가유자녀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참된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6 과
첫째도 둘째도 훈련

1960년 후반기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계속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이러한 때인 주체56(1967)년 4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지휘관을 만나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인민군대에서는 무엇보다도 훈련을 잘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훈련을 잘해야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고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훈련을 잘하여 싸움준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습니다.

인민군지휘관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부대의 전투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인민군대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동해안에 자리잡고있는 한 해군부대를 찾아주신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시게 된 해병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몸소 어뢰정에 오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에 젖어있는 해병들에게 오늘 동무들과 함께 어뢰정을 타고가면서 훈련하는것을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바다날씨가 매우 사나왔던것입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신변이 걱정되여 파도가 심한데 큰 배에 옮겨타셔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늘처럼 파도가 셀 때 어뢰정을 타보아야 어뢰정성원들의 심정도 더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드디여 공격훈련이 시작되였습니다.

어뢰정들이 파도우를 나는듯이 내달리는 모습은 정말 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지휘정의 속도만은 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지휘정의 속도를 조절하고있다는것을 대뜸 간파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금 배의 속도가 얼마인가, 왜 이 배의 속도가 얼마 나가지 않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최대의 속도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였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안전하게 모시려는 마음에서 배의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훈련은 실지전투를 하는것처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대의 속도를 내여 대담하게 돌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해병들은 곧 최대속도를 내여 《적함》으로 육박해갔습니다.

나는듯이 내달리는 어뢰정들의 요란한 소리, 세찬 물갈기, 지휘관들의 힘찬 구령소리, 해병들의 빠른 동작 등 참으로 훈련은 실지 전투같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해병들의 여러가지 훈련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훈련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군에서 훈련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을 익히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뢰정훈련은 지휘관훈련이라고 말할수 있는것만큼 정장들은 능란한 전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가진 능력있는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어뢰정성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싸우는 충실성과 용감성, 희생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군은 밤에 많이 싸워야 하기때문에 야간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

하시였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훈련을 강화하여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야 합니다. 일당백은 구호만 불러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일당백의 기본열쇠는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야 합니다.

해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일당백의 힘을 키울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원쑤치는 심정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해나갈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훈련을 잘하여 짧은 기간에 일당백의 용사들로 준비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뢰정—어뢰로 적군함을 쏘게 되여있는 작고 빠른 배.

제 7 과
량강도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때인 주체57(1968)년 7월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이 깃든 곳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혜산을 거쳐 보천보를 찾으시였습니다.

보천보혁명전적지에 이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처였던 가림천가의 황철나무며 격전의 흔적이 생생한 일제경찰관주재소, 우편국 등을 돌아보시면서 강사의 해설도 들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문득 동행한 녀성항일혁명투사를 보시며 전적지에 와본 느낌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녀투사는 보천보전투가 대단한 전투였는데 어쩐지 전적지가 너무 협소하게 꾸려진감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시더니 안내하는 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보천보혁명전적지가 력사적사실보다 협소하게 꾸려졌다고, 유적물과 자료들이 적은데다가 그것마저도 이것저것 마구 끌어들여 꾸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된것이 다 지난 시기 반당반혁명분자들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혁명전적지에는 유적물과 함께 자료들이 많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혁명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혁명사적을 기본으로 하여 꾸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혁명전적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그러시면서 보천보혁명전적지를 이러한 원칙에 맞게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한 지도를 마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삼지연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삼지연에는 혁명사적표식비 하나 세운것이 없고 주변도 정리되지 않은채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지연을 돌아보시고나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쁜 놈들때문에 삼지연못가가 볼품없이 되였다고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이곳에 큰 기념비를 세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할 결심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백두산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신파군(오늘의 김정숙군)과 후창군(오늘의 김형직군)일대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도 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포평일대의 사적지들까지 다 돌아보시고 혜산에 도착하신 때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완성해나가시였습니다.

동행한 녀투사는 매일 밤을 밝히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대원수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책상우에 종이를 펴놓으시고 선을 그리기도 하시고 무엇인가 적어넣기도 하고계시였습니다.

녀투사를 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였습니다.

녀투사가 가까이 다가가보니 책상우에 펴있는 그 종이는 여러가지 색갈의 부호가 가득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녀투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며 자신께서 지도를 가지고다니면서 표시하여보았는데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없는데가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한번 와서 보기만 해도 큰 감동을 받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 유서깊은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더 정중하게 모시고 사적물들도 원상대로 보존하며 사적비와 기념탑, 조각군상들도 만들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 녀투사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며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 세울 사적비와 기념탑, 조각군상들은 물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로정까지 밝혀져있는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길이 전하기 위한 뜻깊은 설계도였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하여 그후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57(1968)년 여름에 량강도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신것은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로정이였습니다.

제 8 과
인민군대를 김일성대원수님의 군대로

우리 인민군대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는 일찌기 1960년대초부터 시작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기 인민군대안에서는 당의 군사로선이 잘 집행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부대들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현상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먼저 간파하신분은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주체57(1968)년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실태를 현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기 위하여 동해안일대의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습니다.

부대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부대의 전투준비상태와 군사훈련정형,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나타나고있는 현상에 대하여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군대안에 나쁜 장난을 하는 놈들이 있으니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군대안의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자가 교활한 방법으로 친척들과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종파적행동을 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에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자로 말하면 당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자의 죄행을 어느새 꿰뚫어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자는 이 부대에 와서도 당에 충실한 일군들을 이러저러한 트집을 걸어 망탕 떼버렸는가 하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표창별》까지 달아주군 하였습니다.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비범한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자의 책동을 가려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현지에서 군벌관료주의자의 움직임이 위험하다는것을 느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정체를 제때에 밝혀내고 단호한 대책을 세우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새로 만든 기록영화《중대장》을 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영화는 인민군대의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면서 군벌관료주의를 일삼고있는자를 내세우는 영화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영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이미전에 인민군대에서 만든 예술영화《붉은 마음》도 가져다 보시였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역시 군벌관료주의자들을 크게 내세우고있었습니다.

놈들의 음흉한 속심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곧 그 영화들을 만들어낸 2.8영화촬영소(오늘의 4.25예술영화촬영소)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 영화들은 다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지시로 만들어진것이였습니다.

한 군벌관료주의자는 지어 기록영화수행촬영반까지 만들어놓고 자기를 내세우는 놀음을 하고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을 아시게 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교활한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격분을 금치 못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은 군대안의 극소수 나쁜 놈들이 심상치 않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뒤집어엎으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저들의 반당반혁명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맥을 추지 못하게 억누르고 아첨과 가족주의를 조장하여 군벌주의의 지반을 닦으려고 꾀하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까밝혀놓으시는 말씀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반당반혁명적인 움직임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언제나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사업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군벌관료주의자들의 행위를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과 다른것이 없다고 판단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자들을 폭로분쇄할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김일성**대원수님께 보고드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후 인민군대안에 숨어있던 군벌관료주의자들은 철저히 폭로분쇄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후날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군벌관료주의자들을 제때에 적발청산한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큰 공로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책동을 비범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시고 제때에 폭로분쇄하도록 하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군벌관료주의—군대안에서 직권을 리용하여 권세를 쓰며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전횡과 횡포를 부리는 반동적인 사상조류나 그러한 경향.

가족주의—친척, 친우, 동창 등 몇몇 사람들끼리 옳지 못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싸고돌면서 당과 혁명, 조직과 집단의 리익보다 자기들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는 비조직적이며 비원칙적인 사상경향이나 행동.

제 9 과
풍정땅의 전변을 안아오시려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6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농촌경리부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58(1969)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을 찾으시였습니다.

농장에 이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한해에 1만 5 000t의 알곡을 생산하며 마을을 잘 꾸리고 수도화를 실현하여 풍정리를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전망과 목표를 펼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전망과 목표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풍정리에는 부침땅은 많았지만 거의 모두가 소출이 낮은 간석지논이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만t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지만 아직 한번도 그 목표에 이른적이 없었습니다.

농장의 실태와 농장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풍정협동농장은 거의 모두가 간석지논이기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종자를 심으며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리를 잘하고 새 땅을 더 많이 일구어야 한다고

손수 계산까지 해가시며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은 1만 5 000t의 알곡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길을 밝힌 명철한 가르치심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풍정협동농장에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사일에 필요한 수십대의 뜨락또르와 수많은 농기계들, 비료도 넉넉히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가을에 또다시 풍정벌에 나오시여 가을을 제때에 하고 안하는가에 따라 소출이 5％가 왔다갔다한다는데 벼가을을 늦잡지 말고 제때에 하라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에 힘을 넣어 제때에 끝낸 다음 탈곡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문제없다고 했던 계획보다 실지 수확고가 좀 떨어져 농장관리일군들도 농장원들도 아쉬운 마음을 금할수 없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인 주체59(1970)년 2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장을 또다시 찾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관리위원장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제 곧 농장에 도착하시게 된다고 하시면서 대원수님께 지난해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였습니다.

관리위원장은 **김일성**대원수님께 지난해 농사형편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계획보다 실수확고가 좀 떨어진 원인이 어데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관리위원장은 죄송스러운 생각만 앞설뿐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께 지난해 날씨도 나

뿐데다가 좀전에 오면서 포전에 들려 벼그루를 살펴보니 이 동무들이 첫째로 품종배치를 잘못하고 다음으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관리위원장은 왜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관리위원장에게 1만 5 000t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방도를 또다시 강조해주시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문제는 쌀입니다.

쌀이 많아야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농촌테제관철에서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온 농장은 다시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두해사이에 묵은땅을 일구고 토지도 정리하여 온 풍정땅을 기계화할수 있는 규격화된 포전으로 전변시켰으며 간석지논에 맞는 종자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장의 알곡생산은 해마다 늘어나 드디여 1만 5 000t의 알곡을 생산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속에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수도화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풍정리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게 되였으며 이러한 전변은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농촌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고조—밀물이 가장 많이 올리미는 때라는 뜻으로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는것 또는 그러한 앙양된 상태를 비겨이르는 말.

제 10 과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던 나날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혁명연극이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영화혁명을 일으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작단성원들은 이 고전적명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영화창작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59(1970)년 2월 어느날 전체 창작단성원들을 만나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훌륭히 옮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이 작품의 특성을 옳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노예의 처지에서나마 자신의 념원을 이루어보려고 모대기는 한 가난한 농민청년의 형상을 통하여 조선사람이 살길은 오직 일제를 반대하여 혁명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작품의 종자문제를 비롯한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창작단성원들은 모든것이 환해졌고 새로운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영화창작사업을 속도전을 벌려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창작단이 촬영현지로 떠나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을 부르시고 속도전을 벌려 영화를 훌륭하게 완성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도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잘하고 모든 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역을 잘 형상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비행장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머나먼 조국의 북쪽 추운 곳에 예술인들을 떠나보낸것이 못내 걱정되시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려는것이였습니다.

사나운 날씨에 먼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일군들은 이 추위에 떠나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예술인들을 추운 곳에 보내놓고 우리가 뜨뜻한 방안에만 앉아있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신 비행기는 얼마후 혜산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마중나온 도안의 일군에게 이번에 만드는 예술영화가 매우 중요한 영화라고 하시면서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창작단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예술인들의 숙소를 비롯한 모든 생활조건을 다 보살펴주신 다음에야 그곳을 떠나시였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기울이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촬영에 들어간지 이틀째 되는 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귀한 약품들과 수많은 식료품들, 모포, 털외투, 털모자, 털신과 함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에는 한 녀배우의 어린애가 앓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것을 알고서야 그 배우가 어떻게 촬영을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고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한 장면

하시며 그를 평양으로 불러주시였고 병이 완치된 어린애를 탁아소에 맡기고 현지로 돌아가는 그를 역에까지 나가 바래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예술인들은 불타는 열정으로 영화창작전투를 벌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맨발로 생눈길을 걸어가는 연기를 하였으며 귀틀집처마의 고드름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숟가락으로 물을 한방울한방울 떨구어 진짜 고드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촬영가들은 얼어드는 촬영기를 가슴에 품어 녹였고 하나의 화면이라도 더 찍으려고 지는해를 따라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느때 같으면 몇달씩 걸려야 만들군 하던 영화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게 되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영화로 훌륭히 옮겨지게 되였으며 련이어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제 11 과
언제나 **김일성**대원수님을 잘 모시려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잘 모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신 문제였습니다.

주체59(1970)년 6월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수반과 함께 원산지구를 돌아보시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해당부문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행사준비를 다그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이른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행사준비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원산을 찾으시였습니다.

원산에 도착하신 그길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대외활동인것만큼 첫째도 둘째도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행사준비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호텔에서 환영연회를 한 다음 극장에서 예술공연을 하기로 계획하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군들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영연회와 예술공연은 먼길을 오신 수령님의 피곤을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것인데 연회는 호텔에서 하고 공연은 극장에 가서 꼭 해야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공연이라면 응당 무대가 있는 극장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피곤을 덜어드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며

예술공연은 연회장과 잇닿은 호텔정원에 야외무대를 꾸리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정원의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호텔연회장에서 서늘한 바다바람을 안으시고 공연을 보시게 될것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잘 모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안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데리시고 친히 현지를 돌아보시며 무대를 꾸릴 자리까지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이르시여서는 공연종목도 선정해주시고 형상수준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다음날 부두에 나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게 될 함선에 오르시여 대원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며 실내온도와 습도도 알아보시고 배의 속도와 기관소리까지 가늠해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후 다시 원산을 찾으시여 행사준비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먼저 예술공연시연회를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김일성**대원수님께 공연순서표를 타자쳐올려야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일군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이어 타자기활자의 크기가 얼마만한가, 글자가 잘 찍혀서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뿐아니라 타자칠 종이를 손으로 짚어가시며 공연종목은 어느만큼 내려다 치고 그옆에 점은 몇개씩 치며 출연자이름은 얼마만큼 큰 활자로 쳐야 한다는것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글자 하나를 고르고 점 하나를 쳐도 이것을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시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에 큰 감동을 받은 일군은 곧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타자를 쳤습니다.

이윽고 일군으로부터 타자친 순서표들을 받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였겠지만 다시한번 보자고 하시며 한장한장 검토해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획이 좀 똑똑치 않은 활자가 있는 순서표를 보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 올리는 문건에는 자그마한 흠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시 타자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장의 공연순서표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중 제일 깨끗한것을 한장 고르시여 봉투에 정히 넣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단순한 공연순서표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서는 크고작은 일이 따로 없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행사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충실성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것이였습니다.

제 12 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가슴에 모시게 하시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가슴에 정중히 모시고 영원히 대원수님께 충직하려는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오래전부터 간직하여온 간절한 소원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충실성의 마음

을 헤아리시고 당 제5차대회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새로 형상하는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당 제5차대회준비가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던 주체59(1970)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당대회참가자들에게 줄 선물준비정형을 알아보시였습니다.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나서 선물명세서를 올리였습니다.

선물명세서를 눈여겨 살펴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문득 그에게 이것이면 되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그 이상 더 다른것을 예견하지 못했을뿐아니라 그만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왔기때문에 다른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당 제5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신 새로운 당기발형초상휘장을 수여합시다.

순간 일군은 흥분을 누를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기발바탕에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더 밝게, 더 정중하게 모신 새로운 초상휘장을 형상하여 그것을 처음으로 당대회참가자들에게 수여해주시려는것이였습니다.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충실성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렇게 되면 대회참가자들이 정말 기뻐할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준비사업을 빨리 다그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시는 과업을 받아안게 된 일군은 크나큰 격동과 함께 망설여지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일군들가운데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이 모셔진 당기발형초상휘장을 형상하여 만들어본 경험있는 일군이 없었으며 또 현대적인 창작기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수천상의 초상휘장을 며칠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어떻게 도안하며 형상하겠는가 하는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책상우에 종이 한장을 꺼내놓으시더니 만년필을 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만년필을 움직여나가시였습니다.

흰종이우에는 잠간사이에 당기발형초상휘장도안이 그려졌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초상휘장도안을 손수 다 완성하시고나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도안을 일군에게 주시며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새로운 당기발형초상휘장은 바로 이렇게 되여 나오게 되였습니다.

초상휘장견본이 완성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아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초상휘장을 빨리 마저 다 만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초상휘장을 만드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빠른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만들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천상에 달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은 며칠사이에 훌륭히 만들어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이 밝고 정중하게 모셔진 당기발형초상휘장을 먼저 당 제5차대회참가자들에게 수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당대회참가자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앞가슴에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안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김일성**대원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된 우리 당의 위력에 대한 커다란 시위로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잘 형상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수여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숭고한 충실성과 높은 뜻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휘장을 앞가슴에 정중히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13 과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기까지

주체60(1971)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의 폭넓은 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것은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이 마주앉아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할데 대한 방침이였습니다.

이 협상방침은 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 그리고 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민의 통일열망은 더욱 세차게 끓어올랐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남조선괴뢰도당은 갈팡질팡하던 끝에 흩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북남적십자회담을 제기하는것으로 마지 못해 응해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협상과는 거리가 먼것이였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적십자회담에 성의있게 참가하도록 하시면서 남조선측을 끌어당겨 정치회담을 성사시키게 하시였습니다.

그해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북남적십자대표들의 예비회담에 참가하였던 한 일군에게 회담진행정형을 알아보시였습니다.

이날 판문점에서는 남조선적십자단체 대표로 가장한 괴뢰중앙정보부의 어느 한자가 우리측 대표단의 한 성원에게 개별접촉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으나 적들의 속심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일은 우리가 예견한대로 되여가는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조선괴뢰들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정치협상제의에 슬슬 끌려들어오고있다고, 그놈들한테는 이 길밖에 살아날수 있는 길이 없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나 정치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자면 무엇보다 남조선련락대표라고 하는자를 평양에 끌어들이고 그다음에는 실권을 가진 큰 놈을 여기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남조선련락대표를 평양에 끌어들일 구체적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사람들의 눈길이 북남적십자

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쏠려있고 대화가 첫걸음을 뗀 그때에 벌써 비범한 예지로 그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며 정치회담을 실현할 구상과 작전을 펴나가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작전하신대로 남조선련락대표가 드디여 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들어오고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온 남조선측 대표와의 담화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였습니다.

남조선측 대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받아안은 자리에서 이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나갈것을 **김일성**대원수님앞에 맹세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진척됨에 따라 조국통일3대원칙을 준수할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만들어 세상에 발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모여앉아 공동성명을 만들 때였습니다.

남측 대표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접수하고서도 정작 세상에 발표할 북남공동성명을 만드는 문제가 나서자 표현과 문구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당 일군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남북공동성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신을 철저히 관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추호도 양보할수 없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온 남녘땅인민들이 동무들을 지켜보고있다고 하시면서 남측 대표들을 끝까지 설득시켜

공동성명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측 대표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끝까지 설득시키고 공통점을 찾아내여 마침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준수할것을 골자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을 만드는데서 완전한 합의를 보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남공동성명이 세상에 발표되였습니다.

7.4북남공동성명은 30년가까이 북과 남사이에 막혔던 장벽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북과 남의 전체 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참으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의 성과적진행과 7.4북남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제 14 과
몸소 지어주신 혁명가극의 주제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60(1971)년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가극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인민군협주단의 창작가들은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가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체60(1971)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극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인민군협주단에 나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 공연되였습니다.

공연을 보고나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극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태백산병동장면을 잘 형상하지 못하면 가극이 성공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장면이 성공하려면 텅 빈 태백산병동자리에서 주인공이 그저 안타까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말고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그의 절절한 심정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창작가들은 너무도 생동한 형상방도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환희와 신심에 넘쳐있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살리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주인공이 부르는 주제가라고 하시면서 주제가를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후 어느날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제가창작사업을 지도하시려고 또다시 창조현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이 써놓은 수백편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읽으시며 고르시였습니다.

밤늦도록 고르고 또 고르시였지만 택할만 한 가사는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무실로 돌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습니다. 부상병들을 이끌고 기대를 안고 찾아갔던 태백산병동이 텅 빈것을 본 나어린 간호원과 부상병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려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문득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었던 한 농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오르시였습니다.

…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달구지를 몰고 북으로 가고있던 한 농민은 어느 깊은 산골길에서 뜻밖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인님, 어데로 가시기에 이렇게 깊은 밤에 령길을 넘으십니까?》

《북으로 가는 길이지요.》

《거기에 가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있습니까?》

《찾아갈 친척도 없거니와 이 란리통에 친척은 찾아가서 뭘하겠소.》

《로인님, 그러면 어데로 찾아가십니까?》

《가긴 어데로 가겠소.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지요.》

《로인님, 장군님을 왜 찾아가십니까?》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지요.》

한밤중에 로인에게 물어보신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 평범한 로인의 대답에서 큰 감동을 받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간고한 나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신 곳을 우러르며 억세게 싸운 우리 인민들속에 가극의 주인공을 세워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곧 종이를 펴놓으시고 가사를 써나가시였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한 장면

4개 절로 된 가사를 다 쓰시고났을 때는 어느덧 날이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밤을 밝히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전화로 협주단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얼마후 일군이 방에 들어서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사가 적힌 종이를 내여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제 밤 주제가의 가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다가 몇자 적어넣었는데 잘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작가들이 보고 참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사를 받아 읽고난 일군은 시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고말았습니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 **김일성**대원수님 품을 찾아 북으로 향하던 인민군대와 인민들, 그속에 서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었습니다.

그날 그 일군을 통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쓰신 가사를 받

아안은 창작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주제가를 지어주시고 작품전반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흘러넘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은 명작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습니다.

제 15 과
무포의 낚시터에서

주체60(1971)년 가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간의 휴식차로 삼지연에 가시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름만 휴식일뿐이지 여느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사업하시였습니다. 낮에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고 군안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밤에는 밤대로 또 무엇인가를 쓰고 또 쓰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군들의 청을 받아들이시여 무포로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일군들은 행복에 넘쳐 대원수님을 모시고 무포에 도착하였습니다.

무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28(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몸소 이끄시고 조국에 진군하시여 숙영하시였던 영광의 땅입니다.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조국땅의 진달래를 안으시고 **《사향가》**를 부르신 잊지 못할 곳입니다.



무포의 낚시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멸의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습니다.

이윽하여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낚시대와 미끼통을 드시고 두만강의 7호물동가로 가시였습니다.

일군들도 적당한 자리들을 잡고 강물에 낚시대를 드리웠습니다.

산천어들이 연방 물려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잡았다》, 《또 잡았다》하는 환성이 터져올랐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두만강가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신 7호물동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웬일인지 강물에 낚시대를 드리우신채 조용히 앉아계시였습니다.

고기가 미끼를 자꾸 당기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고 이따금 풀잎을 뜯어 물우에 하나둘 띄우기만 하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무척 이상스러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끼시고 뒤를 돌아보시더니 반겨맞아주시며 그에게 자리를 권하시였습니다.

일군은 조심스럽게 위대한 대원수님의 곁에 앉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사방을 둘러보시며 무포의 경치는 참 아름답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있으니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순간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금까지 낚시질을 하신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계시였다는것을 깨닫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준엄한 력사가 이 강줄기와 저 밀림속에 깃들어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수령님처럼 이렇게 험한 길을 헤치시며 혁명을 령도해온분은 없습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수령님의 탄생 60돐이 되여오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의!

일군은 새롭게 받아안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는 깨달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며 **김일성**주의가 온 세상 인민들을 이끌어나가는 영원한 빛발로 되게 하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숭고한 뜻만은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잊을수 없는 무포의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주의로 부를 때가 이미 성숙되였습니다. 사실 늦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오랜 세월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구상이 드디여 완성되였음을 알게 되였으며 멀

지 않아 곧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는 흥분으로 높뛰는 가슴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63(1974)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더욱 휘황히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무포의 낚시터에서의 위대한 구상에 이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쌓아올리신 공적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적이였습니다.

정식화—널리 인정된 정리나 공식의 형식으로 일정한 명제나 정의로 규정하는것.

제 16 과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주체61(1972)년 4월 15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4월 22일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만경대에서 하루를 보내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아침 **김일성**대원수님께 항일투사들이 항일유격대창건 40돐을 맞으며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한다는것을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실 기회가 계시면 그 자리에 인민군대의 젊은 지휘관들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씀올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제의를 받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늘 시간을 내여 항일투사들과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을 불러 그들과 하루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인민군대의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을 부르시여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만경대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게 된 그들은 솟구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얼마후 그들은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로투사들과 함께 만경대로 떠났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에게 혁명의 계승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마음쓰시였습니다.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이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로투사들과 함께 걸으시는 길을 따라 만경대고향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조용히 걸으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에 가는 투사들을 가리키시며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투사들의 머리우에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다, 수령님께서는 로혁명가들을 만나실 때마다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혁명을 계속 잘하여야 하며 혁명의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느덧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신 그들은 고향집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로투사들과 함께 고향집 사립문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오래도록 우러르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이 초가집 사립문에서부터 시작된 주체혁명의 행군길을 억세게 이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얼마후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칠골로 향하시였습니다.

칠골에 이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동상앞에서 로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젊은 지휘관들을 손저어 부르시며 이번에는 동무들이 앞에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가 40여년간 해온 혁명사업을 계승해나갈 동무들이라고, 동무들은 우리의 혈통을 이어나갈 교대자들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김일성**대원수님 앞에 나란히 앉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한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은 끝없는 감격에 휩싸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 기념촬영을 하여주신것은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실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0돐을 계기로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심으로써 그들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제 17 과
황철에서 타오른 자동화의 봉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위업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생산공정의 자동화에서 찾으시고 황철을 본보기단위로 정해주시였습니다.

> **3대기술혁명**
>
>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기술혁명이다.

주체62(1973)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

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황해제철소를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부대인 황해제철소 로동계급이 당중앙이 추켜든 자동화의 봉화를 먼저 들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황철은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라고 하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바로 황철의 로동계급이 고열로동을 하는것을 보시고 자동화의 위업을 구상하시였으니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로 꾸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황철자동화의 방향과 단계, 순차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후에도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또다시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황철의 자동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일로부터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공사전반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설비를 가지고 강철직장에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텔레비존을 도입하였을 때였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일군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강철직장에 더 해결할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강철직장에서는 소음이 요란스러워 지령원들이 목이 갈리도록 큰 목소리로 전투를 지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지령원들의 고달픔을 헤아려보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일군을 그날 밤으로 평양에 올라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전화를 놓으시였을 때는 어느덧 새벽 3시가 가까와오고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안에는 무선전화기들이 주런이 놓여있었습니다.

일군을 반가이 맞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황철지령원들의 고달픔을 생각하니 온밤 잠들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방안의 무선전화기들을 가리키시며 영화촬영소들의 무선전화기를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지령교환대도 당중앙위원회에서 쓰자던것을 모두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황철에 무선화를 합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무어라고 인차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선전화기들은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마련해주신것이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영화는 소리를 치면서 찍을셈치고 이 무선전화기들을 우선 황해제철소 로동계급에게 보내주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황철의 자동화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낄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강철직장 지령원들은 수십년동안 요란한 소음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남모르는 아픔을 완전히 가셔버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텔레비죤송상기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한달이상 걸린다던 강철직장의 산업텔레비죤화와 무선화는 불과 며칠사이에 끝낼수 있었습니다.

자동화의 불길속에서 5.14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의 원격조종화도 실현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밀에 황철에서 1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화의 본보기가 창조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자동화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기술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산업텔레비죤—공장에서 생산과정이나 작업과정을 감시, 조절하기 위하여 쓰이는 텔레비죤.

원격조종—먼거리에 있는 대상을 전자기파신호 또는 그밖의 수단으로 조종하는것.

제 18 과
조선의 영광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오래전인 1970년대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의 나날을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수놓아가고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우리 인민은 대원수님을 인민의 지도자로 열렬히 흠모하며 우러러따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령도풍모를 심장으로

느낀 문학예술인들은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원수님을《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1971년초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칭송하는 송가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이때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흠모하여 송가를 지어 부를것을 결심하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한소절한소절 다듬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흠모의 마음을 담은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훌륭히 완성되였습니다.

이해 뜻깊은 2월 16일이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앉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김정일**대원수님께 대를 이어 충실하려는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격정에 넘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친애하는 지도자께 맹세합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송가는 삽시에 작가, 예술인들로부터 전국의 로동계급과 농장원들, 인민군군인들과 학생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리워졌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존칭은 날을 따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국가적명절과 뜻깊은 날에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받들것을 맹세하는 선서모임을 가졌으며 그러한 구호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처럼 **김정일**대원수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우러러 따르면서 **김정일**대원수님을 **김일성**대원수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실 불같은 념원을 담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올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한 항일혁명투사선생님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일성**대원수님께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혁명을 령도할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사업을 락착지을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동지를 후계자로 추대할 것을 제기하고있는것은 력사발전의 흐름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는 문무를 겸비한 백두산의 아들이다, 그의 사상리론적예지와 통찰력에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그는 조직적수완이 있고 전개력이 있으며 통솔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며 더욱 따르고 존경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시려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열망이 고조되고있던 주체63(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열리였습니다.

전원회의에서 항일의 로투사들과 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의 수뇌부에 모실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으며 대원수님을 받들어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해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이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에서는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올랐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그대로 담아 **김정일**대원수님을 **김일성**대원수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김정일**대원수님께 집결시켜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은 드디여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것은 조선의 영광이고 행복이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었습니다.

후계자—로동계급의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이어받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분.

제 19 과
새형의 혁명연극 《성황당》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지도하시면서 연극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습니다.

새형의 연극을 만드는 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로 된것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연극혁명을 시작할것인가 하는것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창작가들은 오래동안 토론을 거듭하였으나 좀처럼 방도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헤아리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무대에 올리는 사업으로부터 연극혁명을 시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1970년대 전반기의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국립연극단에 고전적명작《**성황당**》을 무

대에 올릴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미리 그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연극부문 일군들에게 단단히 결심하고 달라붙어 혁명연극의 본보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연극혁명은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무대에 올리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 **《성황당》**
>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친히 창작하시고 주체17(1928)년에 카룬(카륜)의 쟈쟈툰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이다.
>
> 작품은 근로하는 인민들이 잘살려면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하며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형의 혁명연극창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67(1978)년 6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연극극장에 나오시여 창조집단이 준비한 공연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창작가들에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작품을 더 잘 형상하자면 아직 많은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연출가에게 이번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의견들이 제기되였는가를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제기되였던 문제를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들이 창조하는 혁명연극《성황당》은 풍자극형식이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창작가들은 풍자극이라고 하면 부정인물들이 나와서 관람자들을 웃기는 연기를 하여 부정을 폭로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연극《성황당》에는 황깍쟁이와 그 녀편네, 구장과

그 녀편네, 전도부인, 중, 무당과 같은 부정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 돌쇠와 그의 동무 만춘이,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와 같은 긍정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작가들속에서는 어떻게 긍정인물들을 웃음거리대상으로 하겠는가, 또 작품의 원작이 풍자극인것만큼 웃음으로 통일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옳은 안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연출가는 생각하던 끝에 작품전반을 웃음으로 관통시킬 결심을 내리고 배우들에게 매일 한가지씩 우스운 동작을 들고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인물들은 물론 긍정인물인 만춘이까지도 어리무던한 행동을 하여 웃기게 하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풍자극이라고 하여 웃음으로만 관통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풍자극도 생활의 론리를 따라야 합니다. 생활의 론리를 따르는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풍자극도 생활의 론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이 작품에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 만춘이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활에도 기쁨과 함께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다고, 생활을 무시하고 웃기기만 하면 그 풍자극은 벌써 잘못된것이라고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종교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 어느 한 장면의 부족점도 지적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지금은 무당과 전도부인, 중이 서로 주먹싸움을 하는것으로 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장면에서는 동작보다도 대사를 많이 주어 말싸움을 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한 장면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처럼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가 있어 혁명연극《성황당》은 통쾌한 웃음도 있고 아름다운 정서도 있으며 눈물도 있는 장면들로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특히 중, 전도부인, 무당이 서로 주먹싸움을 하던 장면은 서로 상대방의 허위성과 기만성, 반동적본질을 폭로하는 말싸움장면으로,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기름진 명장면으로 완성될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식의 연극이 창조되였습니다.

주체67(1978)년 8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완성된 혁명연극《성황당》을 몸소 보아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새 연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혁명연극《성황당》이 창조됨으로써 연극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성황당—땅과 동네를 지켜준다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

제 20 과
진두에서 이끄신 70일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10월 여러가지 난관과 원인으로 하여 년간계획이 많이 미달된 형편을 료해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1974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70일전투를 벌릴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70일전투의 구상을 무르익히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70일전투를 조직하게 된 목적과 중심과업, 그 수행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번 70일전투를 잘 짜고들어 처음부터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적으로 결속지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70일전투는 전당이 총돌격전을 벌려 긴장한 년간계획과제를 기어이 넘쳐수행함으로써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대전투였습니다.

이렇게 70일전투를 발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중심고리를 정해주시고 진두에서 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채굴공업은 70일전투에서 중심고리의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채굴공업부문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중소규모광산을 많이 개발하는데서 찾으시고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큰 광산에만 낯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중소광산들을 적극 개발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중소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없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에 달라붙고보니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가장 큰 곤난은 중소광산을 개발할 기술자, 전문가문제였습니다. 중소광산개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조건에서 그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갑자기 해결할 길이 없었던것이였습니다.

일군들의 고충을 헤아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기술자문제때문에 걱정한다는데 어렵게 생각할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기술자의 예비도 많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부 일군들이 중소광산을 홀시했기때문에 그들이 큰 광산으로 옮겨갔거나 다른 부문으로 돌았을뿐이지 우리 나라에 있을것이 아닌가, 그들을 찾아내면 될것이라고 생각을 틔워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의 기쁨은 컸습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진 중소광산전문가들을 당장 어떻게 찾아내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도당조직들에 과업을 주어 다른 부문에 가있는 광산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찾아내고 여기에 새로 키운 기술일군들을 좀 합치면 중소광산간부와 기술자문제는 해결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전국의 중소광산들의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 해결방도까지 뚜렷이 밝혀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뛰여난 령도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중소광산을 관리운영해본 간부들과 기술자들을 전국적으로 모두 찾아내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들은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중소광산개발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여 채굴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기적과 혁신은 수송, 수출부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나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70일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70일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긴장되였던 1974년인민경제계획이 넘쳐수행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받으신 영웅칭호

주체64(1975). 2.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주체71(1982). 2.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주체81(1992). 2.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주체100(2011). 12.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채굴공업—땅속에 묻혀있는 석탄, 광석, 석유, 천연가스 등을 캐내는 공업.

제 21 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인민군대앞에는 모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새로운 투쟁구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이해 1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서해기슭의 외진 바다가초소를 찾으시였습니다.

꿈결에도 그립던 위대한 대원수님을 자기들의 초소에 모시게 된 녀성군인들은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대원수님께 뜨거운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정히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갑자기 안색을 흐리시였습니다. 그 녀성군인들의 손이 바다바람에 다 튼것을 보시였던것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쓸어만지시며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손이 이렇게 텄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이때 녀성지휘관이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바라는 제일 큰 소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안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사들이 저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신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녀성군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전사들은 기쁨에 넘쳐 발을 동동 구르며《만세!》의 환호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러한 녀성군인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다가 한 전사의 손을 잡으시고 동무들은 지금 수령님의 건강을 그토록 념원하는데 수령님께서 동무들의 손이 이렇게 튼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전사는 군인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안녕하시다면 우리는 손이 아니라 한몸이 다 찢어진대도 일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려는 인민군군인들의 불같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대답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충실성이 차넘치는 녀성중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녀성군인들과 헤여진 후 그들을 못 잊어하시면서 그들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그후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또다시 그 녀성중대군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다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왜 녀성중대군인들을 그처럼 못 잊어하시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주체65(1976)년 양력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앞에 새로운 투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이날 한 일군을 부르시여 인민군대에서의 사상사업정형을 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지난해에 들렸던 녀성해안포중대가 생각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녀성군인들의 충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이처럼 높아지는것만큼 이에 맞게 새로운 투쟁구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이것이 오늘 내가 인민군대앞에 제시하려고 하는 투쟁구호입니다.

일군들은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숭고한 충정이 담긴 새로운 구호를 받아안고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감격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이 구호를 추켜들고 군인들을 더 잘 교양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 구호는 제시되자마자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습니다.

구호는 군인들이 생활하고있는 모든 곳에 나붙어 그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의 한길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22 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주체62(1973)년 2월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64(1975)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3대혁명소조원

들에게 어렵고 중요한 임무들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이 빛나는 위훈을 세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전기공장에 3대혁명소조책임자로 파견되는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때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 우리는 전면적인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 중요공장들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많은 텔레비죤과 송상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전기공장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우리 나라에서 텔레비죤송상관을 생산하는것은 앞날의 일로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황철자동화에 이어 온 나라 제철소, 제강소들의 자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송상관을 자체로 만들것을 결심하시고 그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을 바로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맡겨주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전기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송상관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었지만 그것을 기어이 만들어낼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떨쳐나섰습니다.

실패가 수십차례 거듭될 때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생각하며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합쳐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산업텔레비죤과 송상관의 첫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아 **김정일**대원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직은 부족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식의 산업텔레비존과 송상관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어서 만나보자고 하시였습니다.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시제품을 가지고 평양으로 올라온 전기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을 친히 만나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제품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였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송상관은 전문공장의 기술집단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파악이 있어야 만들수 있는데 대학을 방금 나온 3대혁명소조원들이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용케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조원들이 만든 송상카메라를 손수 조종해보시며 부족점을 지적해주시면서 이제는 신심도 생기게 되였으니 잘 만들어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힘있게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소조원들은 드디여 성능높은 산업텔레비존과 송상관을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사업과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조원들이 사업에서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3대혁명수행에서 앞장선 소조원들을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큰 대회에 대표로도 참가시켜주시고 그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과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서해지구의 어느 한 광산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여 사업하고있던 한 대학생이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였습니다.

전사를 잃은 슬픔을 애써 누르시며 오래도록 방안을 거니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가 생전에 그처럼 바라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조용히 펜을 드시여 문건에 **《이 동무를 입당시키시오.》**라고 쓰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해당부문 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희생된 그에게 당원증을 수여하는 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며 그가 공부하던 대학의 명예당원으로 등록하고 부모들에게는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더욱 심화발전되였으며 이 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나가게 되였습니다.

제 23 과
외국문출판기지를 새로 일떠세우시여

1970년대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깊이 학습하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열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나라의 대외선전물출판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요구를 풀어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외선전물출판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현대적인 외국문출판기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64(1975)년 6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우리 나라에 외국문출판기지를 잘 꾸리지 못한데로부터 외국문출판물을 다른 나라에 가서 찍어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음해에 외국문출판기지를 꾸리는데 힘을 넣어 앞으로는 다 자체로 찍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외국문출판기지를 건설할 자리를 몸소 잡아주시고 주체65(1976)년부터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건설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그러던 8월 미제가 도발한 판문점사건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긴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사를 맡은 일군들속에서는 정세가 긴장하기때문에 외국문출판기지건설을 좀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건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외국문출판기지건설을 그대로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강화될수록 온 세상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리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외국문출판기지건설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외국문출판기지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사를 통일적으로 작전하고 밀고나갈수 있는 외국문출판기지건설추진위원회가 무어졌고 청년돌격대와 많은 운수수단도 동원되게 되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평양의 중심거리에 외국문출판기지가 현대적으로 일떠섰습니다.

주체69(1980)년 7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새로 일떠선 외국문출판사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훌륭히 일떠선 출판사와 인쇄공장건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참, 훌륭합니다. 경치도 좋고 건설도 잘하고 이렇게 꾸리느라고 모두들 수고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출판기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외국문출판사에서 기본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번역출판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대외선전물출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튼튼히 꾸려진 외국문출판기지에 의거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들과 주체사상을 해설한 책들을 출판하는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친히 출판보급할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제목들을 하나하나 정해주시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하여 하루빨리 세계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뿐아니라 대원수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해설한 책들도 번역출판하여 다른 나라들에 내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빛발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제 24 과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검덕은 나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여있고 그 질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의 하나입니다.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릴 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돌파구를 검덕광산을 추켜세우는데서 찾으시고 주체64(1975)년 7월 몸소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광부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을 찾으시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먼저 제2선광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막장을 보자고 하시며 4.5갱으로 향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당황해하였습니다. 4.5갱의 막장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다 생산만 내미느라고 잘

4.5갱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50(1961)년 4월 5일 몸소 다녀가신 갱이다.

검덕의 로동계급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갱막장까지 찾아주신 영광의 그날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갱이름을 4.5갱이라고 지었다.

꾸리지 않아 갱안이 복잡하고 어떤데서는 물까지 줄줄 흐르고있었던것입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막장에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간절히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광부들이 일하고있는데 왜 나라고 못 들어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의 귀중한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갱입구에 있는 자그마한 보통인차에 허물없이 먼저 올라앉으시였습니다.

인차는 어두운 갱속을 달리기 시작하여 거의 1시간만에야 막장에 이르렀습니다.

인차가 멎자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온 막장안은《만세!》의 환호성과 크나큰 감격으로 들끓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인차에서 내리시여 환호하는 광부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보내시고나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나이많은 한 광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위대한 대원수님의 앞으로 나서며 《그 귀하신 몸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그 험한 굴길을…》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흐느끼는 그 광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전당, 전국이 검덕을 지원하고있는데 나도 오고싶어서 왔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시고는 앓는 사람은 없는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습니다.

광부들이 모두 건강하며 사기도 높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한동안 막장안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잠자리를 막장에 옮긴 광부들이 매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속보를 보시고 막장에서 자면서 일하는 광부들이 많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광산일군은 막장에서 자면서 전투를 벌리는 광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있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광산일군들에게 우리가 막장에서 전투를 벌리는것도 바로 로동계급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광부들을 아껴야 합니다, 공기가 나쁜 막장에서 재우지 말고 꼭 밖에 나가서 자도록 하시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광부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 일군들과 광부들은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막장 한쪽에 꾸려져있는 갱사무실에 들어가시여 광산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서야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광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갱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갱밖에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광산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광물의 운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벨트콘베아를 놓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높일데 대한 문제, 검덕의 로동계급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앞장설데 대한 문제 등 광산사업에서 풀어야 할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어느덧 떠나실 시간이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광산을 떠나기가 못내 서운하신듯 역에 나오시여서도 제기되는것이 더 없는가를 알아보시고 방송차와 취주악기를 비롯한 귀중한 선물까지 광부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검덕광산을 찾으시여 광부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광물생산에서는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25 과
삼지연대기념비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량강도의 삼지연에 대기념비를 세울것을 구상해오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시였습니다.

주체65(1976)년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의 위치를 현지에서 정해주시기 위하여 삼지연을 찾으시였습니다.

이른새벽 삼지연못가에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를 어디에 정하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못 건너편에 정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가리키는 못 건너편을 한동안 바라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를 가늠해보시는듯 《갑무경비도로》에서 못가쪽으로, 못가에서 수림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삼지연을 굽어보기도 하시고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기도 하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못

앞에 모시지 않고 못 건너편에 모시려 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삼지연 못 건너편에 대기념비를 세워야 주변의 자연풍치가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더 잘 돋구어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봇나무가 있는 못가에 모셔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사실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기본사적지는 봇나무가 있는 못가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61(1972)년에 삼지연에 오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신 곳도, 주체28(1939)년 5월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길에 휴식하신 유서깊은 곳도 바로 봇나무가 있는 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일군들이 모여 여러날에 걸쳐 토론을 거듭하면서도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봇나무가 선 바로 그 자리에 대원수님동상을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봇나무가 있는 못가앞에서부터《갑무경비도로》가 있는데까지 잘 정리하여 거기에 수령님의 동상도 모시고 사적비와 사적관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상을 비롯하여 여러 군상을 세울 자리도 잡아주시고 삼지연못가의 환경조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서야 이곳을 떠나시였습니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방향을 지침으로 하여 대기념비형성안을 만드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형성안을

여러차례 보아주시며 기념비건설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주체66(1977)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형성안이 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창작가들을 불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들이 만든 형성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삼지연대기념비는 위치도 좋고 규모도 크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삼지연대기념비를 세계의 그 어느 기념비보다도 웅장하게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사상예술적내용뿐아니라 규모에서도 단연 세계적인 대기념비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삼지연에 모실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은 봄가을외투를 입으신 상으로 형상하지 말고 군복에 혁띠를 띠시고 쌍안경을 드신 모습으로 다시 형상하여야 하겠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대형조각상 《진격의 나팔수》와 그를 배경으로 세운 《진군》편군상

그리고 **김일성**대원수님 동상을 옹위하여 세우게 될 군상의 기본내용을 조국진군으로 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창작가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형성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백두산장군의 숭엄한 모습으로 형상되고 동상의 좌우측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조국진군장면을 형상하여 큰 조각상 《진격의 나팔수》와 그를 배경으로 한 《진군》편군상과 《조국》편군상 등 여러 군상을 세우기로 한 형성안이 완성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대기념비건설에서 제일 걸린 문제였던 돌문제와 그 수송문제도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 풀어주시면서 공사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삼지연대기념비는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약 두달 앞둔 주체68(1979)년 3월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였습니다.

참으로 삼지연대기념비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제 26 과
대성산유희장에 깃든 사랑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휴식터를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65(1976)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고 수도에 현대적인 유희장을 건설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탄생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다음해를 계기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지덕체교양에도 이바지하고 또 오래 두고 기념할수 있는 선물로서 유희공원을 하나 꾸려볼가 합니다.

일군은 뜻밖의 말씀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교시하신대로 평양시에 유희시설을 잘해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평양시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의 선물로 유희시설을 만들어주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유희공원설계안을 한번 통이 크게 만들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고 돌아온 일군은 곧 몇몇 일군들과 함께 유희장건설을 위한 설계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유희장설계와 건설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일군들이 설계를 시작한지 얼마후인 1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또다시 부르시여 그들이 준비한 유희시설배치도와 유희기구해설사진첩을 한장한장 주의깊게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사진첩의 첫장을 다시 펼치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유희기구들가운데서 제일 큰 기구인 제트코스타가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듯 한가득 펼쳐져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제트코스타는 청년들의 대담성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유희기구라고 하시면서 제트코스타선로의 길이를 물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1 350m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세계에서 제일 긴것이 얼마인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1 35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1 350m가 제일 길단 말이지요라고 혼자말씀으로 외우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세계적으로 제일 긴것이 1 350m라 해서 그 이상 크게 해서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제트코스타의 선로를 좀 더 길게 하여 1 500m로 합시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사진첩의 다음장을 천천히 번지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진첩에 있는 유희기구들은 모두 몇가지나 되며 그중에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것은 몇가지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사진첩에는 그때까지 세상에 알려진 현대적인 유희기구들이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군들은 그 모든것을 일식으로 갖추어놓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중 몇가지 유희기구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우리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에게 유희공원을 꾸려주려면 한두가지 유희시설을 만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유희공원을 일식으로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유희공원에 식당과 상점,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 유희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도록 할데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유희장건설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몸소 건설현장도 찾으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해주

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대성산유희장은 훌륭히 완공되였습니다.

유희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유희장이 정말 멋이 있게 건설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유희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고 몸소 공중렬차를 비롯한 유희기구들을 타보시면서 그 안전성까지 확인하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성산유희장이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조건은 더욱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습니다.

제트코스타—관성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렬차모양의 놀이시설.

제 27 과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선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5돐을 반년 남짓하게 앞둔 주체65(1976)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일군들에게 다음해 4.15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5돐이라고 하시면서 이날을 더 의의있게 맞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65돐 때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대원수님의 선물로 고급천으로 옷을 한벌씩 해입히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직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통이 큰 작전이였던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그때까지 토론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고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들으시다가 문득 유치원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옷을 해입힐 생각인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물옷을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소학교부터 대학까지의 학생들에게 옷을 해입힐것을 계획하고 유치원어린이들은 빼놓으려고 하였던것입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옷을 해주는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기에 빼놓겠는가고 하시면서 쬐쬐하게 계획하지 말고 통이 크게 계획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큰 마음을 먹고 새로 계획을 세워 위대한 대원수님께 올렸습니다.

계획안을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고 선물타산안이 협소하게 작성된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선물을 줄바에는 일식으로 본때있게 해주자고 하시며 선물명세안을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가지수도 몸소 적어넣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빠진것이 더 없는가를 거듭 훑어보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세상에 일찌기 없었던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안을 앞에 놓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 안은 금액상으로 보아도 처음 계획한것의 4배나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선물의 규모가 큰 사실앞

에서 흥분을 걷잡지 못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선물을 줄바에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 학용품을 만들어주는것은 선물인것만큼 다 무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새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통이 큰 작전에 따라 4.15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선물생산전투를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4.15선물생산전투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전투지휘체계부터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과 도, 시, 군에 준비위원회가, 전국의 수많은 공장들에는 전투지휘부가 나오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생산을 맡은 지방공장들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되였습니다.

이처럼 전투지휘체계를 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생산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선물생산전투를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큰 규모의 선물생산은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물생산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진렬된 선물들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새 옷을 입은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처럼 통이 큰 작전과 새 세대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온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나가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까지 다 사랑의 선물이 차례지게 되였습니다.

제 28 과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책동하면서 전쟁준비를 더욱 미친듯이 다그쳤습니다. 일본반동들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끼여들고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북과 남의 인민들뿐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을 이룹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외에 수많은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게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수많은 대표단과 예술단이 파견되여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선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이 보다 진공적으로 진행되여 그들이 조국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주체66(1977)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더욱더 광범한 해외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받고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그들이 사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더욱 대담하고 폭이 넓게 벌려나갈것을 마음다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외동포계의 상층인사들을 묶어세우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해외동포계의 상층인사들은 거의다 지난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그들과의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일군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뒤늦게나마 조국통일을 바라며 평양을 방문하려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열어주신 통일애국의 길을 따라 남조선괴뢰도당을 등지고 해외에 망명하였던 전 괴뢰군군단장이 1980년 9월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고향을 찾아보고싶어하였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가 직승기를 타고 불편없이 고향마을을 방문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한 군에 있는 마을의 상공에 이르렀을 때 함께 가던 일군이 여기가 선생의 고향마을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살던 집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기 집이 그곳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였다고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더니 어리둥절하여 여기는 자기가 살던 고향마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비행기가 마을상공을 세바퀴나 천천히 도는 사이에도 그는 자기 집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군의 도움을 받아서야 문화주택들속에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묻혀있는 옛날의 자기 집을 겨우 찾아낼수 있었습니다.

고향방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그후 공화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사회주의조국의 발전모습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공화국방문의 나날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며 우러러뵙고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여 **김일성**대원수님의 접견을 받게 해주시였던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처럼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여나게 해주신분이 **김정일**대원수님이시라는것을 알고 대원수님의 위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깨끗치 못한 과거를 가진 그를 비롯한 여러 해외동포들의 인생전환은 모든 해외동포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외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지게 되였으며 조국통일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제 29 과
두번다시 태여난 한 대외일군

혁명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니신 천품이였습니다.

주체66(1977)년 6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일하던 한 대외일군이 뜻하지 않은 일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 의사들은 이미 그 일군에게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살려낼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그 대외일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가있는 우리 나라 일군에게 환자의 부상정도와 치료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하도록 긴급지시를 주시였습니다.

파업을 받은 일군이 그 나라에 도착하니 환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첫 수술을 받기는 하였지만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끔 심장이 멎군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의사들은 더는 살려낼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급히 가족을 데려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군은 이러한 형편과 함께 지금 상태로서는 환자를 조국으로 후송하기도 어렵다는것을 조국에 알렸습니다.

한 일군으로부터 이러한 전보내용을 보고받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른 길은 더 없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그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아무래도 가족을 보내주어야 할것 같다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족이 아니라 의사를 보냅시다, 그의 생명을 책임지고 담보할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의료일군을 보내줍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라면 몰라도 머나먼 나라에 그것도 한사람의 환자를 위하여 의사를 보낸다는것은 보통생각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던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일군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대외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 가서 일하던 동무가 부상을 당하였는데 유능한 의사를 보내여 그의 생명을 꼭 구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친히 한 의학박사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그를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 일하는 한 일군과 함께 환자가 있는 나라에 보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의사를 태운 비행기가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날아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였습니다.

환자는 우리 의사의 치료를 받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동무들과 의사로부터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전해듣고 너무도 감격하여 흐느껴울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은정깊은 보살피심속에서 치료전투는 계속되였습니다.

긴장한 수술이 다시 시작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는 힘이 진해지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록음기를 틀어놓았는지 수술장에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승전고 울리며 돌아오라고
손저어주시던 자애론 그 모습
수만리 먼 곳에 전사들을 보내고
이 밤도 지새우실 지도자동지

노래의 구절구절을 더듬는 환자의 눈앞에는 그립고그리운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습니다.

그는 한 전사의 생명을 두고 그리도 걱정하시는 한없이 위대한 그 품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눈을 감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는 끝내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소생하게 되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파를 타고 조국에 전해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보고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사향이나 산삼 같은 귀한 약을 아끼지 말고 보내주어 빨리 몸을 회복하게 하라고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환자가 몸을 움직일수 있게 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조국에 데려다가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두달이 지난 후 조국에 돌아온 환자는 중앙의 한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입원기간 환자의 건강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시며 치료를 잘하도록 거듭되는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풍치좋은 료양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여 몇달동안 푹 쉬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은 열가지 백가지를 다 헤아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사랑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평범한 한 대외일군은 이렇게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났습니다.

제 30 과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온 나라는 교육테제를 받아안은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교육테제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려는 인민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교육부문의 몇명의 사람들만 하는 일로 생각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0월 어느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나왔다고 하여 모든것이 다 저절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동무들은 교육테제를 읽어보기나 하고 행정실무적대책이나 취하면 다 될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실현하자면 사상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교육테제를 관철하자면 교육사

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육테제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 다음해 7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찾으시여 전국교육일군대회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습니다.

초기에 일군들은 이 대회를 몇천명이 참가하는 작은 규모의 교육부문 열성자회의로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정형을 료해하시고 회의를 크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의이름도 전국교육일군대회라고 하며 1만 5 000명의 규모로 크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대회보고문도 당의 의도에 맞게 작성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67(1978)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교육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대회에는 각 도, 시, 군의 수많은 교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회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직접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는 일대 사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

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 지금 우리 나라 인민학교(오늘의 소학교)와 고등중학교(오늘의 중학교)의 교육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 일군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보지 못했다고 대답올렸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나에게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수안을 한부씩 올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교육의 수준을 좀 보자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일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습니다.

사실 교육테제가 나온지도 벌써 1년이 되여오고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지도 오래지만 교육사업을 맡아보는 일군들조차 교과서나 교수안을 깊이 연구해본 일이 없었던것입니다. 그런데 당과 국가의 사업을 령도하시기에 분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교수안까지 보아주겠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일군들이 올린 100여부나 되는 교수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보통교육교과목편성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도덕과목에서는 사상교양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생들의 도덕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교과서를 다시 만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는 글읽기,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에 대한 기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밖에도 소학교 산수교육을 현대수학에 기초한 수학교육으로, 문법위주의 외국어교육을 회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어교육으로 넘어가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과서들이 새로 완성되여나와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31 과
석탄생산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인민은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석탄생산문제부터 풀어야 하였습니다.

주체67(1978)년 1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석탄생산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오늘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며 탄광들에 설비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고 생산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탄광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를 몸소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중앙기관의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석탄공업부문 당지도소조를 무어 중요탄광들에 내보내게 하시였습니다.

한편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들이 동원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방송, 신문들에서도 석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선전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텔레비죤에서도 저녁마다 탄부들을 위한 방송을 따로 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기세는 부쩍 오르고 탄광들에서는 날에 날마다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주체69(1980)년 2월 16일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일군들은 대원수님의 집무실에 찾아가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이 하루만이라도 쉬여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생일이라고 쉬겠는가고 하시면서 난 동무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것보다도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었다는 보고를 가지고올것을

바라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요즘 석탄생산정형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해당부문 일군이 석탄생산정형을 보고드리였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니 석탄생산이 월초에는 떨어졌다가 월말에 가서야 올라가군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전반적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월초병을 없애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자신의 생신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석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깊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한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석탄생산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는 탄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땅속 깊은 막장에서 나라의 보물을 캐내는 탄부들이 제일 수고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행사와 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부족하신듯 우리 인민들이 지성담아 올린 인삼, 록용을 비롯한 귀중한 보약들마저 탄부들에게 보내주시였습니다.

한없이 뜨거운 그 사랑을 받아안은 온 나라 탄광의 로동계급은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요구되는 석탄을 원만히 보장하여나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해마다 석탄생산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제2차 7개년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습니다.

박토—바깥에서 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그우에 덮여있는 흙이나 바위를 벗겨내는것.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2학년용)

제 3 판

집 필 부교수 리춘길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주 영　　콤퓨터편성 리은경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9(2010)년 8월 23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7월 7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7월 17일

교－12－보－749　　값 5원